

부부와 함께하는 사회생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모이사 오영택

우린 핵가족시대에 살고 있다.
노인들도 자식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
부부 중심의 생활환경으로 비빔으로서 자연히 부
부와 같이 하는 사회생활을 자주 접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부
부와 함께하는 사회생활에 익숙지 못한 우리는 여
러면에서 미숙한 점이 나타난다.

요새는 무슨 행사나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초청받
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런 자리엔 여지없이 '남녀
칠세 부동석'을 가슴에 세기며(?) 아마 대부분은 남
자 따로 여자 따로 뚝쳐서 앉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부부동반 모임이 생활화된 서양인들의 경우는 어
떨까?

여자는 남자 오른쪽에 앉는다. 동성끼리 몰려 앉
지 않는다. 부부와 남자가 승용차를 타는 경우에도
자기 부인을 가운데 앉게 한다. 서방국가 정상들 부
부간의 사진촬영 할 때 자기 부인을 상대방 정상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한다.

또한 가까운 국가간에는 영부인이 상대방 정상과
포옹인사를 하고 정상간(남자들끼리)에는 악수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관계에 있어
유교적인 보수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속
담에도 '여자와 접시는 집밖으로 나가면 깨진다'는
말까지 있다.

얼마전 동창부부 두쌍과 저녁을 하게 되었다. 그
중 한 부인이 체격도 풍만한데다가 여름이라 노출
이 다른 부인들보다 심한 편이었다. 50세이상 중년
이라 아무생각 없이 식사를 하는 중에 노출이 심하
다고 여긴 남편이 '육체미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옷
을 입었느냐'하면서 편잔을 주어 옆에서 듣기가 민
망한 적이 있다. 50세이상 나이먹은 자기부인이 좀
노출을 했으면 어째서 그런가하고 화가 온근히 났다.

외출할 때면 부인이 남편에게 입은 옷이 어떠한
고 묻는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요사이 여권신장이 많이 되어서 여성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옷을 입으려고 할 것이다.

‘여자와 접시는...’의 속담은 지금의 잣대는 못 된다.

우린 부부가 되면 100%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 정부공약의 하나인 여권(女權) 개선의 의지에 발맞추어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으며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생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번은 영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각국대표들 중 부인들을 동반한 국가들도 있었다.

세미나중 몇 번의 저녁만찬이 있었는데 좌석배치는 주최측인 영국에서 맡아 지정하는 좌석에 앉아야 했는데 매번 부부간에 옆좌석에 배치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여 긴 저녁시간동안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부인들의 경우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동양식으로 보면 부부간에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평상 붙어 사는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떼어놓으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심 골탕 먹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은근히 좌가 치밀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았으니 영국인의 좌석배치에 특특히 덕을 본 셈이다.

부부가 서로 보는 앞에서 다른 부부와 가까이하는 사회생활도 의미있는 경험일 것 같다.

부부와 함께하는 사회생활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도 자기 부인이 남의 남자 옆에 앉을 수 있고, 포옹하는 인사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자기부인이 외출시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약간의 노출은 너그럽게 용인해주면 어떨까?

또 한번은 1980년대에 필리핀 사람과 술을 같이 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이야기 도중 한국에서는 남자끼리 술 마시고 늦게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남자가 너무 부럽다는 것이다.

필리핀 남자는 부인과 함께 행동해야지 남자 혼자 저녁 늦게 술먹고 다닐 수 없으며 그렇게 하다가는 이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필리핀이 그런면에서는 한국보다 서구화 되었고 남녀평등이 되어있는 사회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반대의 예도 있다. 필자는 예전에 사우디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가까이 지내는 사우디 사람이 있었다.

사우디는 가까운 사람일 경우 손님 접대를 할 때 집으로 초청한다. 필자의 경우도 사우디 친구집에 몇 번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부인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한번은 필자가 ‘내 아내도 보았으니 당신아내도 보자’고 다그친 적이 있었는데, 사우디 친구는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부인을 문틈으로 삐끔히 인사시키곤 저녁식사 자리에는 여전히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직까지 나라마다 부부간 함께하는 문화가 매우 상이하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사우디 부부의 생활상을 너무 심하지 않나 하고 보는것과 같이 서양인들의 눈으로 볼 때 한국부부들의 생활이 폐쇄적이고 고루하게 비쳐지지는 않을지 모를 일이다.

불평등(gender inequality)은 우리사회에 있어 오랜역사 만큼이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여권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인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성 불평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인 공감으로 실천되어 관행이 될 때 비로소 개선되어질 것이고 부부간의 공동 생활에도 일방적인 소유의 성격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